

Scientists have been giving some serious thought to discovering what makes the perfect body. The conclusions of some scientists may not be what you would expect! Apparently, the perfect human body should be short in stature with additional fat. Their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of shorter stature have a longer life expectancy than taller people, while being overweight is actually believed to help protect you from a long list of medical problems. I wonder what does God think is the perfect body?

과학자들은 인간의 완벽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를 것 입니다. 완벽한 체형은 키가 작고 살집이 있는 몸이라는 것 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키가 큰 사람들 보다 길고, 과체중인 것이 보다 많은 질병들을 막아준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In our first Combined Service for 2017 in January we saw that our future hope as Christians is d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in terms of a new creation which will be created for, ruled over by and united under Christ. We saw that the new creation is all about Jesus and not about us. But what will it mean for us? What will you and I be like in thes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What type of people will we be? What type of body will we have? What will we look like? How will we think? Some of the clearest answers to these intriguing questions are found in the passage we read from 1 Corinthians 15, which tells us about the certaint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nsequences of our future resurrection.

2017년 1월 첫 연합예배를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신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 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의 가장 명확한 답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 특징 그리고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1. The Certainty of a Resurrection

When the apostle Paul wrote to the church in Corinth, it would seem that at least some people thought that there was no resurrection from the dead at all. We are not quite sure the exact form this idea might have taken. Maybe some of them thought that after this life they would simply exist as bodiless spirits floating around in heaven somehow, a bit like ghosts, but wouldn't really have physical bodies as such. Whatever the precise detail of their thinking, we know that some were saying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v.12).

1. 부활의 확신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죽음 뒤 부활이 아예 없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은 죽음 뒤에 형체 없는 영혼의 모습으로 귀신처럼 천국에서 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몇몇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12 절)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apostle Paul couldn't disagree more and his logic is set out in verses 16-20. Jesus' own resurrection has proven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f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en Jesus himself could not have been resurrected, and his body must be lying in a grave somewhere in Palestine. Therefore, Christianity is wrong, and we are to be pitied as fools for following a lie. If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the dead, then certainly talking about Christian hope is a waste of time. But hold on! Jesus did rise from the dead! Paul states that crucial fact and gives a list of those to whom the risen Christ appeared in the early verses of 1 Corinthians 15 (vv.4-8). And in that trailblazing act, Jesus has not only proven there is a resurrection of the dead but he has also prepared the way for his followers to be resurrected from the dead as well. Paul

(1 Corinthians 15:12-58)

describes the resurrection of Christ as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v.20). “First fruits” is a farming term to refer to the earliest fruit of the season. They were always a source of rejoicing and excitement because it was a sign that there was plenty more of the harvest to come. In the book of Leviticus in the Old Testament the term “first fruits” refers to the first sheaf of the harvest given to the Lord (Leviticus 23:10-11, 17, 20) as a token that all the harvest belonged to the Lord and would be dedicated to him through dedicated lives. By describing Christ’s resurrection as the “first fruits”, Paul is therefore describing how, just as God raised Christ, so he will raise us with a resurrection body. Christ’s resurrection is the guarantee of the resurrection of all of God’s redeemed people. We therefore have the certain hope of a resurrected bodily life in a new, physical creation.

사도바울은 이 의견에 철저히 반대하였고 그 이유는 16-20 절에 나와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의 몸은 팔레스타인 어딘가에 있는 무덤 속에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이고 우리는 거짓을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한 뒤에 고린도전서 15 장의 첫 부분에 (4-8 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 앞에 나타났는지를 나열합니다. 이 선구적인 일을 함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음에서 부활 할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20 절)라고 묘사 합니다. “첫 열매”는 그 계절의 가장 이른 열매를 설명할 때 농부들이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할 열매가 많다는 징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첫 열매”는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확물 중의 첫 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10-11, 17,20).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함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2. The Characteristics of a Resurrection Body

But what will the characteristics of our new body be? Will we look the same as now? What age will our resurrected body be? What about babies who have tragically died? What age will they be? Will their parents recognize them if they come back as grown ups? I’m sure many of us have had these sorts of questions at some time or another. Well, Paul’s answer in vv.35-44 might disappoint you at first. In some ways, his comments about our resurrection body are quite frustrating, aren’t they? All we get are cryptic remarks about plant life, animals, birds and fish, and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Most of us would like a more detailed description than this.

2. 부활의 몸의 특징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과 똑같이 생겼을까요? 부활한 몸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비극적으로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성인으로 부활하면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 한번씩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44 절에 나온 바울의 답은 처음에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활한 몸에 대해 바울이 한 말들은 좀 답답합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 새와 물고기, 해, 달 그리고 별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말들만 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합니다.

Paul, however, says that it is foolish to want that level of detail because our resurrection bodies will be a totally different category to our present bodies. The main thing we need to know is that our new bodies will be entirely appropriate for the new creation. On a glorious, imperishable, eternal new earth we will have glorious, imperishable and immortal new bodies. Our bodies will be perfectly suited for a perfect new world. This in itself is exciting. For example, a word like “imperishable” presumably means that our new bodies won’t wear out! Now, wouldn’t that be great! As we get older our bodies start to function less effectively don’t they? For some of us, it is

(1 Corinthians 15:12-58)

so easy for our backs to go, even through a simple exertion like bending over to pick up a coin we've dropped or lifting some bags of supermarket shopping. Others find their joints aching through arthritis or their mobility, agility or eyesight deteriorating or their minds becoming more forgetful. As we get older, these things make us long for the new creation, where we will be raised imperishable.

하지만 바울은 부활한 뒤의 우리 몸은 현재의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몸은 새로운 세상에 완벽하게 적합할거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영원한 불멸의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영화롭고 썩지않는 불멸의 몸을 지닐 것 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완벽하게 잘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썩지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새로운 몸은 헐지 않을 것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떨어뜨린 동전을 줍거나 장바구니를 집어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통해서도 허리가 너무 쉽게 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관절염때문에 혹은 이동성이나 민첩성이 떨어져서 관절이 아픈 사람들, 시력이 점점 약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증이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처럼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새로운 세상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As good as that is, perhaps the most exciting thing is that each one of us will also be raised as a “spiritual body” (v.44). By using the word “spiritual” I don't think Paul is referring to some disembodied spirit floating around in the presence of God. That would contradict everything he had said earlier in the chapter. No, it's more likely that the phrase “spiritual body” refers to a body that is fully empowered with God's life-giving Spirit. It will be a body no longer controlled by the sinful desires of our present nature but fully and utterly controlled by the Spirit of God. It is in that sense that we will be like Jesus. That is why Paul goes on to say, “As was the earthly man, so are those who are of the earth; and as is the man from heaven, so also are those who are of heaven. And just as we have borne the likeness of the earthly man, so shall we bear the likeness of the man from heaven” (vv.48-49). Now, some people read these verses about us bearing the same likeness as “the man from heaven”, and they think it means our own resurrection body will be like the body Jesus had when he reappeared to his disciples. So we'll be able to mysteriously appear in locked rooms somehow, just the way Jesus did (John 20:19). And, just as Jesus reappeared with the wounds from his crucifixion, our resurrection body will bear the wounds of whatever we die from. I don't think that is the case, because Jesus' resurrection was a unique act in which he quite distinctly reappeared in the body he died in. And with good reason, because that way, there would be no doubt to anyone that it was really him. And so he could conclusively show that he has power over death.

이것도 좋지만 더 기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44 절)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울이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주위를 떠다니는 영을 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장에서 말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완벽하게 가득 찬 몸을 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욕망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릇 흠에 속한 자들은 저 흠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8-49 절)라고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구절을 읽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문잠긴 방에 신비롭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20:19).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생긴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돌아가신 몸 그대로 다시 나타나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1 Corinthians 15:12-58)

So when Paul says, “so shall we bear the likeness of the man from heaven”, the context suggests that he is speaking more in terms of the spiritual life of Jesus – that just as Jesus’ body was controlled by the Spirit, and not by sin, we also will receive a Spirit-controlled body. We will gain relief from the inner sinful desires that plague us in this world. Instead, God’s Spirit will saturate our thoughts and desires with ones that are true, noble, right, pure, lovely and admirable. Can you imagine it? Your body will no longer be enslaved by the cravings of a sinful nature. Your body will now be fully energized by God’s own spirit. Now surely that is the perfect body!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의 몸은 죄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이 진실되고 고결하고 올바르게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훌륭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상상 이 가나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3. The Consequences of a Resurrection Body

Whenever I read 1 Corinthians 15, I am struck by how long a chapter it is. It’s actually one of the longest in the New Testament almost double the average length of a New Testament chapter – 31 verses. The length of 1 Corinthians 15 reflects the importance of our bodily resurrection, because it shows that Paul decided to write at length on the topic. And he wrote not simply to outline the appropriateness of our bodies for the new creation to come, nor even simply to defend the certainty of our resurrection from the dead. What seems to have thrilled Paul the most about our resurrection from the dead are the implications for life now – in particular, how our lives are no longer at the mercy of death. You can hear the excitement in his words in vv.50-57, can’t you?

3. 부활의 몸의 결과

저는 고린도전서 15 장을 읽을 때 마다 이 장이 너무 길어서 놀랍니다. 이 장은 신약에서 가장 긴 장중에 하나이고 평균 신약 한 장의 길이 – 31 절 – 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 장의 길이는 우리 몸의 부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길게 적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우리의 몸이 새로 올 세상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만 이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인 듯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57 절에서 그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There is a story about a missionary who was working amongst an Indian tribe in Brazil. They were suffering from a contagious disease that had been ravaging the population, causing many deaths. The missionary decided that the only hope for the tribespeople was to trek through the jungle to reach a neighbouring hospital for treatment. The trouble was that, in order to reach the hospital, they would have to travel through a particular river, which they refused to cross. They believed that evil spirits inhabited this river, and that to enter the water meant certain death. The missionary explained at length that that wasn’t true, but they refused to believe him. He led the tribe to the bank of the river and placed his hand in the water, but they would not follow him. He then walked out into the river and splashed water on his face, but still they refused. Finally he turned and dived into the water, swam beneath the surface until he emerged on the other side. As he came up out of the water, he punched the air with his fist to show he had done it and survived. The tribespeople cheered, and only then did they follow him across the river.

브라질의 어떤 인디안 부족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휩쓸면서 수많은 죽음을 유발한 전염병때문에 고통받고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글을 지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 부족이 건너기를 거부하는 어떤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악령들이 이 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 이 선교사님은 이들을 강가로 데려가 손을 물에 담갔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 물에 들어가서 물로 세수도 했지만 따라오길 거부했습니다. 결국

(1 Corinthians 15:12-58)

선교사님은 물 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서 강 건너편에 도착한 후 물위로 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가 해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승리의 주먹을 들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제서야 선교사님을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That's a great pictur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u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are trapped in a life in which we are at the mercy of sin and death. Paul describes sin as the "sting of death" (v.56). In other words, sin traps us in death. Once we sin, once the sting goes in, death snaps around us. Because of our sin, death becomes our justified punishment. But by dying on the cross, Christ robbed death of its sting. Jesus Christ, our perfect high priest, offered his life as a perfect sacrifice and substitute on our behalf. On the cross, Christ submerged himself in the death we deserved. But then on the third day he re-emerged to show us his power, and to make clear to those who follow him that death is not final.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6 절). 다른 말로 죄는 우리를 죽음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번 쏘이면, 죽음이 다가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침을 앗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삶을 우리 대신 완벽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할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Some years ago I heard an intriguing interview between the journalist, Andrew Denton, and the famous naturalist Sir David Attenborough on the topic of death. Here was a famous man, an expert in the natural world, a man who would seem to have lots of things in his life, and yet he said that every day he thinks about death, thinking about how death robs meaning of everything we do.

"Why buy this or do that, when I'm just going to die anyway (and there's no afterlife)? What's the point?" is what he constantly asks himself.

수년 전 기자인 앤드류 덴튼과 유명한 동물학자 데이비드 아텐버러 경 사이의 죽음에 대한 흥미로운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자연 세계의 유명한 전문가, 그의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 것 같은 이 사람이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앗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리고 사후 세계가 없다면) 왜 무언가를 사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까? 무슨 소용일까?"라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자신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The apostle Paul's words in 1 Corinthians 15 couldn't be more different. They are triumphant and full of purpose. Our death is not the end. A resurrection body in a new creation awaits and therefore what we do in this life matters. Paul exhorts us,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ur in the Lord is not in vain" (v.58). In the movie, "Gladiator", Russell Crowe plays the role of Maximus Decimus Meridius, commander of the northern armies of the Roman Empire. There is a memorable and much quoted scene early in the movie when Maximus is motivating his troops before they go into battle against the Barbarian hordes. On the verge of entering this massive and bloody battle, Maximus calls on his men to fight courageously with the stirring words, "Brothers,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고린도전서 15 장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말은 이와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목적으로 가득 차고 승리감에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의 몸이 우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58 절)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는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라는 로마 제국 북쪽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 막시무스가 야만인 무리와의 전쟁에 앞서 그의 군대를 격려하는 기억에 남고 자주 인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투에 앞서 "전우들,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반영된다" 라는 감동적인 말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자고 격려합니다.

It's a great line. And it's not a bad paraphrase of the apostle Paul's final climactic sentence in 1 Corinthians 15: "your labour in the Lord is not in vain" (v.58). Can you grasp the bigness of that idea? Can you feel the excitement of it? We are called to a life that is far more than being a happy little consumer with a home (either owned/mortgaged or rented) and perhaps some children. We are called to do things that will echo through eternity. There's a bigness to this truth which can transform our present lives into a bit of an adventure, really. Whoever you are, when you are a child of God, one of God's people, you are living a life that's going somewhere and which can make a true and lasting difference. A life which really does echo through eternity, perhaps even in ways we can't begin to imagine.

정말 좋은 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사도바울의 마지막 문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괜찮을 대사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58 절). 이 개념의 거대함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집과 어찌면 아이들을 가진 평범하고 행복한 소비자로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영향을 끼칠 일들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실에는 우리 현재의 삶을 모험으로 바꾸어 줄 원대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은 진실되고 영구적인 변화를 이루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원토록 영향이 있는 삶입니다.

When we teach a Sunday School class or an English lesson with its Bible component or CRE at the local primary school or a holiday club program at Skipton, when we encourage others in their faith at church, when we support local or overseas mission work practically, prayerfully and/or financially, when we talk to our friends or neighbours about Jesus, when we invite guests to an IYA or other outreach dinner – it may not feel like it at the time, but these are things which may have consequences that last forever. For Christ has defeated death. There is more to life than simply this life. And therefore it takes on a whole new meaning, as we prepare – and help others to prepare – for that moment, that "twinkling of an eye", when we will be changed into a glorious, imperishable, immortal and Spirit – controlled person.

우리가 주일학교나 영어수업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또 초등학교나 스킵톤 holiday club 에서 CRE 를 가르칠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지체들을 격려할 때, 지역 선교나 해외 선교를 현실적으로, 기도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때,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IYA 나 다른 봉사단체 저녁 모임에 손님들을 초대 할 때 –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결과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롭고 썩지 않고 불멸한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될 순간을 위해 준비 하면서 –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at's our hope in Christ!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Amen